

일부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및 신념과 구강관리용품 사용의 관련성

김보람¹ · 김슬기¹ · 김여은² · 김효진³ · 이민경⁴ · 천세희^{5*}

¹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대학원생, ²아주대학교 의료원 치과위생사,
³올하 어린이치과의원 치과위생사, ⁴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⁵마산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Oral Health, Beliefs and Use of Oral Care Products in Some Adults

Bo-Ram Kim¹, Seul-Gi Kim¹, Yeo-Eun Kim², Hyo-Jin Kim³, Min-Kyung Lee⁴, Sae-Hee Cheon^{5*}

¹Dep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Graduate School, Graduate student

²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Dental hygienist

³Yulha Kids Clinic, Dental hygienist

⁴Dep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⁵Dep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Objectives: The purpose is to comprehensively investigate and analyze an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oral health, beliefs and use of oral care products in some adults to increase interest in oral health care in the future, helping oral health professionals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recommend the use of oral care products.

Methods: From July 11th to August 19th, 2022, some adults were self-entered using an online survey.

Results: There is a significant an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oral health, beliefs and use of oral care products in some adults

Conclusions: In order to have oral health behavior, we propose to provide a program that can create the right oral health belief in various aspects.

Keywords Oral health behaviors, Oral health beliefs,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Use of oral care products

Received on May 08, 2023. Revised on Jun 12, 2023. Accepted on Jun 13, 2023.

* Corresponding Author (E-mail: cheon@masan.ac.kr)

I. 서론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평균 83.6세에 이르렀지만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평균 66.3세에 불과하다[1].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속도를 건강수명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병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신체의 건강 중 구강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처럼 구강은 소화기관의 첫 시작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이 필수적이다[3].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건강 관련 행위를 하게 된다. 인간의 태도와 신념은 행동의

전제 조건이 되므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건강신념은 물리적 환경보다는 사람의 주관적 인지상태에 의해 행위가 결정되며[4], 자신의 구강상태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치아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일반적인 행동에 필요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결정된다고 하였다[5].

이러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의 척도는 각 개인이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근거하여 측정된다. 이는 구강건강에 대한 만족도, 기능제한 상태에 대한 인식, 구강에 대한 심미적인 평가 등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의 척도로 볼 수 있다[6].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건강증진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의료인의 임상적인 평가보다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이 삶의 질에 대해 보다 정확한 예측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5,7].

주관적인 구강건강인식은 건강증진 생활습관과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며[8],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 행위 간 관련성이 있으며[4], 구강신념을 통해 개인의 구강보건행태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9]. 이는 바람직한 구강건강인식 및 신념은 바람직한 구강건강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바람직한 구강건강행동은 올바른 구강건강상태의 인식에서 비롯되며 이는 구강관리용품의 인지 및 사용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10].

구강관리용품은 치아상실의 주요 원인인 치아우식증과 치주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질환 발생의 주된 원인인 치면세균막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면세균막은 칫솔질 만으로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어[11] 칫솔질과 함께 구강관리용품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구강관리용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11].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12],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에 따라 구강관리용품의 인지정도와 사용정도의 증가[13]와 중년층의 구강건강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실천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이처럼 구강관리용품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학생, 근로자, 임산부, 치주질환자 등과 같은 특정 대상자들의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여부나 인식 또는 교육 요구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3,9,11,15]. 또한,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 행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4]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관리용품의 구체적인 사용 실태와 개인의 구강건강 신념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는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성인을 중심으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및 신념과 구강관리용품 사용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향후 구강건강관리에 대해 관심을 증대시켜 국민들이 올바른 구강건강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구강보건 전문 인력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권장에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경남 지역의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 기입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총 245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미비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총 228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부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및 신념과 구강관리용품 사용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김[7]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구강관리용품에 관한 질문 8문항, 구강건강신념에 관한 질문 14문항,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질문 8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 중 구강관리용품에 관한 질문 8문항, 구강건강신념에 관한 질문 14문항,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질문 8문항은 각각 Likert의 5점 등간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했고 일반적 특성 10문항은 명목척도로 평가하였다. 점수는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자료분석(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로 제시하였고,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신념, 구강관리용품 사용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신념, 구강관리용품사용의 차이는 독립표본-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관리용품사용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65.8%로서 남자 34.2%보다 많았고, 나이는 50~59세 36.0%, 30~49세 32.5%, 20~29세 26.3%, 60세 이상 5.3% 순으로 나타났다

다. 직업은 전문직 32.9%, 기타 21.5%, 서비스직, 자영업 16.7%, 학생 16.2%, 주부 12.7%이였으며, 소득은 100만원 미만 30.7%, 200~299만원 22.4%, 100~199만원 19.3%, 400만원 이상 17.1%, 300~399만원 10.5% 순으로 나타났다.

2) 구강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칫솔질 횟수는 3회 57.9%, 2회 이하 35.1%, 4회 이상 7.0%였고, 칫솔질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78	34.2
	Female	150	65.8
Age	20 to 29 years old	60	26.3
	30 to 49 years old	74	32.5
	50 to 59 years old	82	36.0
	More than 60 years old	12	5.3
Occupation	Students	37	16.2
	Profession	75	32.9
	Housewife	29	12.7
	Service workers and self-employed	38	16.7
	Others	49	21.5
Income	Less than 1,000,000won	70	30.7
	1,000,000~1,990,000won	44	19.3
	2,000,000~2,990,000won	51	22.4
	3,000,000~3,990,000won	24	10.5
	More than 4,000,000won	39	17.1

<Table 2> Oral-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	%
Numbers of brushing teeth	Less than 2 times	80	35.1
	3 times	132	57.9
	More than 4 times	16	7.0
Time of brushing teeth	Less than 1 minute	13	5.7
	1~2 minutes	118	51.8
	More than 3 minutes	97	42.5
Oral diseases	Periodontal disease	120	52.6
	Aesthetics	52	22.8
	Prosthetic	40	17.5
	Temporomandibular joint(TMJ)	16	7.0
Oral supplies	Know	155	68.0
	Don't know	73	32.0
Reason for us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68	29.8
	Removal of halitosis	22	9.6
	Removal of food impaction	90	39.5
	Prevention of periodontal disease	39	17.1
	Others	9	3.9
Use of oral care products	Dental floss	132	57.9
	Mouthwash	51	22.4
	Fluorine products	16	7.0
	Electric toothbrushing	29	12.7

시간은 1~2분 51.8%, 3분 이상 42.5%, 1분 내로 5.7%이었으며, 구강질환은 치주질환 52.6%, 심미 22.8%, 보철 17.5%, 턱관절 7.0%이었고, 구강용품은 잘 알고 있다 68.0%가 전혀 모른다 32.0%보다 많았고, 사용이유는 음식물 잔사 제거 39.5%, 충치예방 29.8%, 치주질환 개선 17.1%, 구취제거 9.6%, 기타 3.9%이었고, 사용용품은 치실 57.9%, 구강양치용액 22.4%, 전통용품 12.7%, 불소용품 7.0%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신념 및 구강관리용품 사용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신념, 구강관리

<Table 3>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beliefs, and use of oral care product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Mean	SD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3.25	0.61
Oral health beliefs	3.28	0.58
Use of oral care products	2.90	0.72

용품 사용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주관적 구강상태는 3.25점, 구강건강신념은 3.28점, 구강관리용품 사용은 2.90점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신념, 구강관리용품 사용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신념, 구강관리용품사용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구강건강신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이었다. 여자(M=3.36)가 남자(M=3.13)에 비해 유의하게 구강건강신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13, p=0.004$).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에서는 성별에서 여자(M=2.98)가 남자(M=2.75)에 비해 구강관리용품 사용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2.374, p=0.018$), 나이에서 20~29세(M=3.19)가 가장 높았으며, 50~59세(M=2.83), 30~49세(M=2.82), 60세 이상(M=2.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581, p=0.001$). 또한 소득에서 100~199만원(M=3.20)이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M=2.97), 400만원 이상(M=2.76), 300~399만원(M=2.74),

<Table 4>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beliefs, and use of oral care product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beliefs	Use of oral care products
		M±SD	M±SD	M±SD
Gender	Male	3.15±0.65	3.13±0.59	2.75±0.76
	Female	3.31±0.58	3.36±0.55	2.98±0.69
	<i>t/F(p)</i>	0.498(0.069)	-2.913(0.004)	-2.374(0.018)
Age	20 to 29 years old	3.39±0.75	3.43±0.68	3.19±0.84 ^c
	30 to 49 years old	3.25±0.55	3.23±0.50	2.82±0.64 ^b
	50 to 59 years old	3.16±0.52	3.23±0.54	2.83±0.61 ^b
	More than 60 years old	3.28±0.70	3.20±0.61	2.46±0.87 ^a
	<i>t/F(p)</i>	1.613(0.187)	1.877(0.134)	5.581(0.001)
Occupation	Students	3.41±0.79	3.32±0.69	3.06±0.80
	Profession	3.19±0.52	3.35±0.56	3.01±0.79
	Housewife	3.33±0.63	3.31±0.50	2.92±0.61
	Service workers and self-employed	3.27±0.62	3.23±0.54	2.71±0.62
	Others	3.18±0.56	3.18±0.57	2.75±0.64
	<i>t/F(p)</i>	1.128(0.344)	0.764(0.549)	2.068(0.086)
Income	Less than 1,000,000won	3.27±0.69	3.32±0.57	2.97±0.62 ^{ab}
	1,000,000~1,990,000won	3.36±0.60	3.43±0.61	3.20±0.83 ^b
	2,000,000~2,990,000won	3.31±0.59	3.19±0.54	2.73±0.68 ^a
	3,000,000~3,990,000won	3.15±0.46	3.15±0.56	2.74±0.65 ^a
	More than 4,000,000won	3.10±0.57	3.24±0.59	2.76±0.75 ^a
	<i>t/F(p)</i>	1.314(0.266)	1.505(0.202)	3.596(0.006)

a<b<c: Duncan's multiple comparison

200~299만원(M=2.73)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596, p=0.006).

4. 구강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신념, 구강관리용품사용

구강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신념, 구강관리용품사용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구강건강신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구강관련 특성은 칫솔질 횟수였다. 4회 이상(M=3.42), 3회(M=3.36)가 2회 이하(M=3.13)보다 구강건강신

념이 높게 나타났다(F=4.522, p=0.012). 또한 칫솔질 시간에서 3분 이상(M=3.46)이 1분 내로(M=3.26), 1~2분(M=3.14)보다 구강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났다(F=8.453, p<0.001). 또한 구강용품에서 전혀 모른다(M=3.39)에 비해 잘 알고 있다(M=3.70)가 유의하게 높았다(t=2.824, p=0.005). 그리고 사용이유에서 치주질환 개선(M=3.47), 충치예방(M=3.30), 음식물잔사제거(M=3.27), 구취제거(M=3.31)가 기타(M=2.7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262, p=0.013). 구강관리용품사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에서는 칫솔질 시간으로 나타났다. 3분 이상(M=3.07)이 1~2분(M=2.78), 1분 내로(M=2.71)보다 구강관리용

<Table 5>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beliefs, and use of oral care products according to oral-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beliefs	Use of oral care products
		M±SD	M±SD	M±SD
Numbers of brushing teeth	Less than 2 times	3.18±0.65	3.13±0.56 ^a	2.85±0.72
	3 times	3.32±0.59	3.36±0.57 ^{ab}	2.93±0.73
	More than 4 times	3.14±0.58	3.42±0.56 ^b	2.95±0.71
	t/F(p)	1.638(0.197)	4.522(0.012)	0.328(0.721)
Time of brushing teeth	Less than 1 minute	2.96±0.63	3.26±0.60 ^{ab}	2.71±0.89 ^a
	1~2 minute	3.29±0.60	3.14±0.52 ^a	2.78±0.72 ^a
	More than 3 times	3.25±0.61	3.46±0.60 ^b	3.07±0.67 ^b
	t/F(p)	1.737(0.178)	8.453(<0.001)	4.701(0.010)
Oral diseases	Periodontal disease	3.20±0.57	3.25±0.56	2.84±0.69 ^a
	Aesthetics	3.32±0.66	3.28±0.59	3.00±0.71 ^a
	Prosthetic	3.23±0.61	3.23±0.53	2.73±0.70 ^a
	Temporomandibular joint(TMJ)	3.53±0.73	3.65±0.64	3.41±0.81 ^b
t/F(p)	1.673(0.174)	2.474(0.062)	4.152(0.007)	
Oral supplies	Know	3.30±0.57	3.70±0.51	3.10±0.67
	Don't know	3.26±0.60	3.39±0.49	2.47±0.63
	t/F(p)	0.334(0.739)	2.824(0.005)	6.763(<0.001)
Reason for us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3.27±0.63	3.30±0.56 ^b	3.03±0.60 ^b
	Removal of halitosis	3.31±0.79	3.14±0.61 ^b	2.92±0.65 ^b
	Removal of food impaction	3.23±0.54	3.27±0.52 ^b	2.87±0.74 ^b
	Prevention of periodontal disease	3.28±0.66	3.47±0.63 ^b	2.94±0.80 ^b
	Others	3.17±0.49	2.79±0.64 ^a	2.06±0.68 ^a
t/F(p)	0.175(0.951)	3.262(0.013)	3.887(0.005)	
Supplies for care products	Dental floss	3.19±0.61	3.31±0.60	2.87±0.77
	Mouthwash	3.33±0.64	3.22±0.49	2.82±0.66
	Fluorine products	3.46±0.59	3.25±0.36	2.81±0.63
	Electric toothbrushing	3.32±0.55	3.31±0.69	3.21±0.61
	t/F(p)	1.550(0.203)	0.330(0.804)	2.111(0.100)

a<b: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beliefs, and the use of oral care products

Characteristics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beliefs	Use of oral care products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1		
Oral health beliefs	-0.006	1	
Use of oral care products	-0.014	0.581**	1

**p<0.01

품사용이 높게 나타났으며(F=4.701, p=0.010), 구강질환에서 턱관절(M=3.41), 심미(M=3.00), 치주질환(M=2.84), 보철(M=2.73) 순으로 구강관리용품사용이 높게 나타났(F=4.152, p=0.007). 또한 구강용품에서 잘 알고 있다(M=3.10)가 전혀 모른다(M=2.47)에 비해 구강관리용품 사용이 유의하게 높았다(t=6.763, p<0.001). 그리고 사용이유에서 충치예방(M=3.03), 치주질환 개선(M=2.94), 구취제거(M=2.92), 음식물잔사제거(M=2.87)가 기타(M=2.0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F=3.887, p=0.005).

5.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신념, 구강관리용품 사용 간의 관련성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신념, 구강관리용품 사용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이 구강관리용품사용과 구강건강신념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581, p<0.01). 따라서 구강건강신념이 높을수록 구강관리용품사용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IV. 고찰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칫솔질을 이용한 치면세균막 관리이다[16]. 구강관리용품은 칫솔질만으로 닿지 않는 부위의 치면세균막의 제거를 용이하게 도와주며, 구강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구강위생의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 시판되는 구강관리용품은 약 10여 종이 있으며[17], 연령이나 구강상태에 따라 각 개인에게 필요성을 가지는 구강관리용품의 종류는 다양하며 적합한 구강관리용품을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18].

구강관리용품의 사용은 구강용품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19], 본 연구에서도 구강관리용품의 사용은 구강용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용액과 같은 구강관리용품의 인지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30.5%가 ‘사용법을 잘 몰라서’로 응답했다. 변[3]과 김[17]의 연구에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어떤 사이즈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는 등 구강용품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지식적인 접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환자 각 개인의 구강에 적합한 구강관리용품을 선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강관리용품 사용은 치실이 57.9%, 구강양치용액이 22.4% 순으로 남[2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채[11]의 연구에서도 치실이 33.6%, 구강양치용액이 32.1%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여전히 구강관리용품에서 치실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과거보다 치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치실의 전체적인 사용 비중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정[10]의 연구에서는 구강양치용액 사용이 가장 높았으며, 치실이 그 다음이었다. 이는 구강양치용액의 휴대의 용이성 및 사용의 편리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3].

구강관리용품 사용은 턱관절, 심미, 치주질환, 보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 등[12]의 연구에서는 교정환자에서 가장 높았으며, 치주질환자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교정과 같이 턱관절이나 심미와 관련된 요인들은 환자 스스로 치료 및 관리의 필요 요구도가 높은 치료로 구강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높은 반면 치주질환이나 보철과 같은 치료는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 관리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관리용품 사용 간에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정[10], 장 등[12]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구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강 건강 증진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구강관리용품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구강건강신념은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증상이 없는 단계에

서 질병을 예방하고, 발견할 목적으로 취하는 행위와 관련된 요인으로[21] 박[21]의 연구결과 구강건강신념이 칫솔질 횟수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구강건강신념과 관련하여 칫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구강조보용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지각은 행동의 계기 여부에 따라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구강건강신념과 일치한다.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관리용품의 사용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송[9], 김 등[22]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구강관리용품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강건강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행위는 구강건강신념이나 지식이 올바르게 정립된 경우 가능하며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강 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변화되어진다[14]. 아동들의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행위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4], 전 등[23]의 연구에서 반복노출을 통한 교육에서 행동 변화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학령기는 자기 주도적 학습 및 행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형성된 행동습관은 평생습관으로 이어지므로 교육을 통해 옳은 신념과 행동양식을 고착화할 수 있다. 중년기의 건강은 노년까지 이어지게 되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노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점차 증가한다. 구강관리용품의 필요성과 사용이 증가하고 종류가 다양화되는 시기이지만 교육의 기회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변[3]의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상에서 구강관리용품 선택 시 어려운 점으로 ‘나에게 필요한 구강관리용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비율은 점차 증가했다. 본 논문의 결과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관리용품의 사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에 들어서면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접근이 쉽지 않고, 구강질환을 진단 받고도 치과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기회가 매우 적었다[18]. 장[16], 김[17]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동기를 조사한 결과 ‘치과에서 권장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6%, 45.0%, 김[17], 박[24]의 연구에서 ‘TV 매체나 광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5%, 57.6%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치과에서뿐만 아니라 매체의 활발한 활용 및 도움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만들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구강보건인력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엄 등[13]은 연구 결과를 통해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과 구강상태의 변화 및 개별 구강상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사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기에 각 연령별로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령층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아 연령과 연구주제에 관한 다양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구강건강신념에 대해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했다면 주관적 구강건강과의 관련성과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대해 좀 더 세세한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구강건강행위나 구강건강 행동이 아닌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관리용품 사용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일부 성인 22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및 신념과 구강관리용품 사용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이 여성인 경우($p=0.004$) 높게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이 여성인 경우($p=0.018$), 나이가 20~29세 이하인 경우($p=0.001$), 소득이 100~199만원 이하인 경우($p=0.006$) 높게 나타났다.
3. 구강관련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칫솔질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p=0.012$), 칫솔질 시간이 3분이상인 경우($p<0.001$), 구강용품을 잘 알고 있는 경우($p=0.005$), 사용이유가 치주질환 개선인 경우($p=0.013$) 높게 나타났다.
4. 구강관련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사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칫솔질 시간이 3분 이상인 경우($p=0.010$), 구강질환이 턱관절인 경우($p=0.007$), 구강용품을 잘 알고 있는 경우($p<0.001$), 사용이유가 충치예방인 경우($p=0.005$) 높았다.
5.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신념, 구강관리용품 사용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구강관리용품사용과 구강건강신념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보아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강건강

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신념 확립을 위해 구강보전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교육을 통해 변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연령에서 올바른 신념 확립과 행동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에 꾸준한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며 다각도의 방면에서 올바른 구강건강신념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900&bid=208&act=view&list_no=422107
2. Jung SH, Choi JS: Policy Planning for Oral Health Promo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1-93, 2000. DO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275>
3. Byun SH: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Usage of Oral Hygiene Products for Dental Patient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llabukdo, 2019.
4. Jang BJ: Study on Relation between Dental Health Beliefs and Dental Health Behavior in the Hig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8(3):163-168, 2008. UCI: I410-ECN-0102-2009-510-020183641
5. Gilbert L: Social factors and self-assessed oral health in South Africa.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2(1):47-51, 1994. DOI: 10.1111/j.1600-0528.1994.tb01568.x
6. Kim HY: Factors related to self-reported oral health status in Korean adults. Journal Korean Acad Dent Health 29(4): 496-505, 2005. UCI: I410-ECN-0102-2009-510-001339514
7. Kim MG: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nd Associ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Dental Implant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yeonggido, 2016.
8. Lee HS: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oral health and perceived oral symptoms among adults in Daegu. J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4):671-681, 2010. UCI: I410-ECN-0102-2012-510-001590298
9. Song J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Oral Health Beliefs to Oral Health Practice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Part Areas. Journal of Korean Dental Hygiene Science 12(3):227-233, 2012. UCI: G704-002151.2012.12.3.010
10. Lee KH, Jung ES: The influence of subjective awareness of dental health status on the use of dental hygienic devices. J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3):477-486, 2015. DOI: 10.13065/jksdh.2015.15.03.477
11. Chae MS: A study on for the 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among Dental Patients. master's thesis, Daegu Hanny university, Daegu, 2007.
12. Jang JE, Yang KY, Jeong SR, Choi YH: Correlations Among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Oral Hygiene Devices According to Pati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2):189-196, 2018. DOI: 10.21184/jkeia.2018.2.12.2.189
13. Eom S, Choi YJ, Kwon SJ: Effects of Preventive Knowledge about Two Major Oral Diseases on the Correct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and Oral Disease Preventive Practice of Middle-Aged Clas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9(4):62-69, 2021. DOI: 10.22156/CS4SMB.2020.10.06.156
14. Eom S, Choi YJ: Oral Health Beliefs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s of Middle-aged People, Oral Efficacy,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relationship with Quality of Lif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6):156-163, 2020. DOI: 10.22156/CS4SMB.2020.10.06.156
15. Moon MY: The knowledge of the dental hygienist about the usage of the oral hygiene devices attitude and behavior about the usage education of the mouth health good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04.
16. Jang KA: A Study on Auxiliary Oral Hygiene Menterial Status and Oral Health Knowledge by Maintenance Oral Care System. Journal of Korean Dental Hygiene Science 13(2):35-43, 2007. UCI: I410-ECN-0102-2012-510-001070737
17. Kim SK: A Study on the Status of Recogni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Oral Hygiene Devices: with outpatient as the central figur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2(2): 95-103, 2002. UCI: I410-ECN-0102-2009-510-020111212
18. Jeung MO, Kang PS, Lee KS, Hwang TY: Usage Patterns of Oral Care Products of Dental Patients.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24:319-329, 2007. UCI: I410-ECN-0102-2012-510-003403163
19. Park CS, Kim YI, Jang SH: A study on the status of

- recognition, understanding of the use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oral hygiene devices in dental clinics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9(4):1-16, 2009.
UCI: G704-SER000010586.2009.9.4.013
20. Nam SM: A study on the practic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and oral health status of patients in 'S' university dental clinic.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1(3):373-381, 2011.
UCI: G704-SER000010586.2011.11.3.007
21. Park MS: The Effect of Oral Health Behavior by Oral Health Belief of Student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1(2):107-119, 2011.
UCI: G704-002151.2011.11.2.002
22. Kim MN, Lim DS, Kim MH, Kim AR, Kim SI, Ahn YS: Effect of Health Belief Factor on Oral Health Related Behavior in Pregnant Woma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2):129-137, 2015.
UCI: I410-ECN-0102-2015-500-001983582
23. Jeon ES, Kim KM, Kim HJ: A Study on the Use of Oral Supplements before and after Oral Health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7(1):94-101, 2023.
DOI: 10.33097/JNCTA.2023.07.01.94
24. Park HR: A Study on the Statu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Oral Hygiene Devices: with Labor of the D heavy industrie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6(2):93-99, 2006.
UCI: I410-ECN-0102-2008-510-002846027